

저축은행중앙회장 유력 후보자 2인 인터뷰

“저축銀 목소리 일원화” vs “업계-금융당국 가교役”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

(박재식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

차기 저축은행중앙회장 최종 후보자가 16일 결정된다. 이번 후보 공모에는 역대 최다 인원인 7명이 등록해 그 어느때보다도 최종 후보자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종 후보에 오를 개연성이 높은 차기 저축은행중앙회장 후보 2명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조성목 후보 '서민금융 베테랑' 강조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전문성과 추진력을 갖춘 사람이야 한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

1순위 과제 '예보료 인하'
서민금융, 싱크탱크로 각종 규제에 적극적 대처
전문성·추진력으로 진격

높아 업계에서는 부담이 과중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는 “과거 저축은행의 원죄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이같은 ‘연좌제’ 식 규제는 부담하다”며 “높은 예보료로 대출원가를 높여놓으면 대출금리 또한 높아지는데,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에게는 부담되는 것이 사실이다”고 말했다.

그는 “37년동안 준 공직생활을 하면서 6년 반 동안 저축은행을 담당했다”며 “미운정, 고운정이 모두 든 만큼 저축은행에 대한 열정도 크다”고 강조했다.

차기 회장이 될 경우 가장 이루고 싶은 1순위 과제로 조 원장은 예금보험료(예보료) 인하를 꼽았다. 저축은행의 예보료는 0.4%, 시중은행(0.08%) 대비 5배가

금융당국에 내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며 “서민금융연구원을 싱크탱크로 삼아 저축은행 업계의 목소리를 일원화하겠다”고 했다.

조 원장은 마지막으로 “3년이라는 중앙회장의 임기는 절대 길지 않다”며 “역대 중앙회장들과 면담을 해보니 1년은 업무 파악, 그 다음 1년은 교섭 추진, 마지막 1년은 퇴임 준비에 쓴다고 한다. 그보다는 당장의 현안을 알고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전문 인사가 더 좋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저축은행 분야에 몸담았던 전문성과 각종 규제에 대해 적극 대처할 수 있는 추진력으로 중앙회장의 자리

30년간 금융 공직에 몸 담아 민간기업 사장 등 경험 풍부
저축銀, 대손충당금 적립 등 과한 규제 완화 되도록 노력



박재식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

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재식 후보 '정통 금융관료' 강조
“30년의 공직생활 경험을 살려 저축은행 업계와 금융당국 간 가교역할을 하겠다.”

행정고시 26회로 정통 금융관료 출신 후보자인 박재식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은 풍부한 공직 경험을 강조했다. 박 전 사장은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보험제도과장 및 국제기구과장 등을 지낸 후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과 한국증권금융 사장으로 활동했다.

그는 “재정경제부에 몸담았을 때 저축은행 담당 과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저축은행에 대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며 “공직에서 30년 가량을 있었기에 그 경험이 크고, 한국증권금융과 같은 민간 금융회사에서 사장으로 재직할 경험도 있어 차기 저축은행중앙회장으로서 업계 발전을 위해 기여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저축은행 업계와 금융당국 간 가교 역할을 원활히 수행해 서민금융 기관으로서 저축은행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들고 싶다”고 했다.

박 전 사장은 높은 예보료에 이어 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 문제를 과도한 규제로 봤다. 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올해 최대 3%포인트까지 상향 조정된다. 대손충당금은 금융사의 부실에 따른 회수불능 추산액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개념으로, 적립률이 높을수록 금융사의 이익과 고객의 대출 기회가 줄어든다.

그는 이에 대해 “저축은행 사태가 벌어진 후 과도한 규제가 적용됐던 부분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며 “그동안 저축은행 업계가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노력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홍명영 수습기자 hong93@metroseoul.co.kr

거미줄 규제에 성장 한계... 넥슨 매물로

‘중저가폰 전성시대’에 드리운 그림자

‘넥슨 매각사태 원인과 대안’ 토론회
규제 개선 안되면 ‘제2 넥슨’ 초래
중소 지원 등 정부 정책 손질해야



정책토론회에 참가한 패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김나인 기자

“삼성전자가 중국 화웨이에 지분을 매각한다고 하면 환영하겠나. 게임의 위기는 어제 오늘 시작된 게 아니다.”(위정현 콘텐츠미래융합포럼 의장)

국내 최대 게임회사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NXC(넥슨 지주사) 대표의 회사 매각 추진 사실이 알려진 이후 한국 게임 산업의 현주소 점검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넥슨 매각설이 단순히 한 개인의 판단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혁신 동력이 떨어진 국내 게임 산업의 위기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라는 위기감이 퍼졌기 때문이다.

14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열린 ‘넥슨 매각 사태: 그 원인과 대안은 무엇인가’ 토론회에서는 한국 게임 산업의 현실과 정부의 게임 규제에 대한 접목한 의견이 펼쳐졌다.

발제에 나선 위정현 콘텐츠미래융합포럼 의장은 김정주 회장의 판단 배경으로 국내 게임 산업의 성장 한계를 꼽았다.

현재 하드코어 전략수행게임(RPG) 시장으로 넘어간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매각 ▲매각 실패와 현상유지 등 네 가지 넥슨 매각 시나리오를 제시하며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게임 규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국내에서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청소년의 심야시간 게임 이용을 금지하는 ‘셧다운제’, 온라인게임 결제 한도 제한 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게임업계 출신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화콘텐츠 수출액 50% 이상은 게임이고 온라인 게임,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낸 것도 우리나라인데 게임 업계의 자괴감이 상당한 수준”이라며 “특히 게임은 4차 산업혁명 얘기할 때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을 먼저 도입한 분야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게임 산업에 썩어진 규제가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옳지 않을 틀을 가지고 있다”며 “이런 규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넥슨 매각과 관련된 사태가 지속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성의 한국모바일게임협회장은 “넥슨 매각 사태를 보고 제 2, 3의 넥슨이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 정부 규제 정책을 철폐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

기업 10곳 중 8곳
“올 최저임금 인상
신규 채용에 부담”

기업 10곳 중 8곳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신규채용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은 지난 1일부터

시간당 8530원으로 지난해 대비 10.9% 인상됐다.

14일 사람인이 기업 906곳을 대상으로 ‘2019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신규채용 부담’을 주제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기업 중 77%가 ‘신규채용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기업 형태별로 중소기업(78.6%)이 부담을 느낀다는 비율이 가장 많았고, 대기

업(66.7%), 중견기업(62.1%) 보다 10% 이상 높았다.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복수응답)으로는 ‘채용 규모 축소’가 절반에 가까운 49.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연봉 동결’(25.8%), ‘야근 및 특근금지’(24.5%), ‘구조조정’(20.5%), ‘계약직 위주 채용’(20.2%) 등의 답변이 있었다

/한용수 기자 hys@

고성능·가성비에 소비자 ‘긍정적’
중 저가부품 공세에 시장 ‘부정적’
시장 정체시 韓 부품사 피해 초래

중저가폰이 무거워졌다. 플래그십에 앞서 최신 기술을 탑재하고, 가격도 저렴해지는 추세다. 자급제가 확산하는 데다가 중국산 제품이 쏟아지면서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부정적인 눈치다. 중저가폰 특성상 이익이 적은 편인 데다 ‘치킨게임’ 양상까지 보이고 있어서다. 기술 혁신을 등한시하면서 업계 악순환이 시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저가폰 전성시대

1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달 중국에 갤럭시 A8S를 출시했다. 중급형 라인업인 갤럭시 A시리즈의 최신 해외 모델이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갤럭시 A7 2018년형을 출시했다.

LG전자도 지난 11일 국내에 보급형 제품 Q9을 출시했다. 해외에서 G7 핏으로 판매됐던 모델로 알려졌다.

이들 제품 공통점은 가격이다. 삼성전자 A7 출고가는 49만4000원, A8S도 중국에서 50만원 안팎에 팔리고 있다. LG전자도 Q9을 출고가 49만4000원에 출시했다.

아울러 두 제품은 중저가 모델 대비 높은 스펙으로 소비자 이목을 집중시켰다. 삼성전자는 A7에 브랜드 최초로 트리플 카메라를 채택한 데 이어, A8S에는 인티니티-O 디스플레이를 최초로 채용했다. LG전자도 Q9에 6.1인치 QHD+ 해상도에 후면 1600만 화소 카메라를 장착하는 등 ‘가성비’에 힘을 쏟았다.

◆보급형 인기 왜?

중저가폰 고급화는 스마트폰 시장 수요 변화를 가장 큰 원인으로 한다. 소비자들이 플래그십보다는 중저가폰을 선호하게 되면서 제조사간 경쟁점도 중저가 모

델로 옮겨갔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경제 불안은 중저가폰 수요를 부추긴 주요 원인 중 하나다. 미국과 중국이 치열한 무역 전쟁을 시작하면서 소비자들도 주머니 지퍼를 닫았다는 것. 특히 신흥시장에서 소비 동결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산 저가 제품 공세도 중저가폰 인기에 힘을 보탤다. 화웨이와 샤오미, 오포 등이 장본인이다. 삼성이나 LG 플래그십 스펙을 따라가면서도, 가격은 50만원 이하로 떨어뜨렸다.

◆시장 악순환 고리 되나

소비자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고성능 휴대전화화가 필요하지 않은 소비자에게는 합리적인 상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중저가폰 인기가 결국 스마트폰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가장 큰 문제는 ‘치킨게임’ 발발이다. 전문가들은 2020년대까지도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이 연간 14만대 수준에 멈춰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국 업체들의 저가 공세가 이어지면 실제 시장 규모는 더 크게 쪼그라들 가능성이 높다.

소비자들은 낮은 품질의 제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게 된다. 제조사들이 스펙을 올리는 대신 부실한 마감 등으로 원가를 줄일 수 있어서다. 비용을 줄이기 위해 사후 서비스 질도 떨어질 수 있다.

이익이 줄어들면 연구 개발 비용(R&D)도 축소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플래그십 중요도가 낮아지면 첨단 기술을 상용화하기 어려워진다는 얘기다.

부품사들은 중저가폰 고급화로 당분간 수혜를 입을 수 있지만, 시장이 정체되면 결국 피해도 고스란히 돌려받게 된다는 분석이다. 중저가폰 인기가 스마트폰 시장 악순환을 불러오는 셈이다.

/김재욱 기자 juk@